

Chief Strategist
이영원

02) 3787-2505
youngwon.lee@hmcib.com

Strategist 김정호

02) 3787-2385
hmcstar@hmcib.com

- 2014년 배당, 의미있는 개선 관찰되고 있음. 전체 기업 이익 추이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배당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
- 정부의 배당관련 정책패키지와 개별 기업의 주주친화정책의 결합으로 배당 증가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
- 삼성전자를 필두로 확대된 배당안을 발표한 기업의 배당 증대 뿐 아니라 향후 발표될 예상 배당을 감안한 한국시장의 2014년 배당 성향은 16%대, 배당률은 1.24%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전통적인 배당투자 시기는 아니지만 최근 위축되어오던 배당정책의 의미있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실적발표 시점은 배당투자에 유의미한 기간이 되고 있음. 적극적인 배당을 시행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014년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의 배당정책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2014년 기업 실적이 2013년에 비해 뚜렷이 개선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배당은 실적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도 2014년 당기 순이익은 22.2조원으로 지난 2013년 30.5조원에 비해 감소했지만 배당은 적극적으로 실시, 2013년 2.16조원에 비해 39%이상 증가한 2.99조원을 공시했다. (중간배당 포함)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도 전년에 비해 각각 53%, 43%씩 증가한 8170억, 4040억 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그리고 2013년 배당을 시행하지 않았던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대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

지난 주말까지 배당을 공시한 84개 종목 가운데 48개 종목의 배당금이 증가했고 28개 종목의 배당금이 감소했다. 84개 종목의 전체 배당금의 규모는 지난 2013년에 비해 1.04조원 증가했다. 여기에 배당을 시행할 기업들의 배당금 예상치를 추가할 경우 전체 배당은 지난 해에 비해 1.93조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상장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지난 2013년 14.2%에서 16.42%로, 배당률은 1.07%에서 1.24%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 예상규모가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되어있고, 이미 배당정책을 발표한 기업들의 경우도 예상치를 훨씬 넘어선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2014년 배당은 시장의 예상 수준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시장의 배당규모가 절대적으로 매우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배당성향과 배당률의 추이를 관찰해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배당지표들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 초입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시장의 배당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배당관련 세제개편을 포함한 배당관련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하고 있다. 기업들도 각각의 이해에 기초해 주주 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당에 점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2014년 배당 규모의 증가가 획기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점진적이고 꾸준한 배당의 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기존 위축되지만 하던 배당정책이 점진적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한국시장에서도 배당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폭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당투자 시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적과 함께 발표되는 각 기업의 배당정책이 시장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어닝시즌을 통해 배당을 확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배당 증가가 있었던 기업들은 표2에서 확인되는 배당금액 증가 상위 종목과 표4, 배당을 증가 상위종목 등이다. 배당금 증액규모를 통해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업종을 대표하는 대형주의 증대된 배당금을 확정했고, SK, GS등 지주사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배당금 증가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당을 측면에서는 GS홈쇼핑을 필두로 메가스터디, 엔씨소프트, LG디스플레이 등 배당을 확정된 기업의 배당을 개선폭이 컸고 향후 배당이 발표될 기업들 중에서는 SK, GS, 국도화학, LS 등이 배당을 개선폭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확정된 기업의 배당을 포함해 예상되는 배당 수준은 배당수익률 측면에서는 16.4%, 배당을 측면에서는 1.24%로 추가로 개선될 여지가 아직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세계시장의 평균 배당성향 40%대와 배당률 2.4%대를 감안할 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된 만큼 향후 배당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대응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변화의 첫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어닝시즌에는 배당 이슈가 보다 부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1〉 2014년 확정 배당금액 상위 종목 (단위:백만원)

		2014년	2013년
A005930	삼성전자	2,999,972	2,156,969
A005380	현대차	817,317	534,409
A005490	POSCO	639,527	633,192
A033780	KT&G	428,056	402,876
A000270	기아차	404,058	283,490
A032830	삼성생명	340,335	162,414
A051910	LG화학	294,520	294,520
A000660	SK하이닉스	218,401	0
A000810	삼성화재	198,776	120,201
A034220	LG디스플레이	178,908	0
A029780	삼성카드	115,401	80,780
A004020	현대제철	86,909	57,939
A000830	삼성물산	75,923	75,910
A066570	LG전자	72,885	36,872
A017670	SK텔레콤	70,936	666,374
A006400	삼성SDI	70,314	67,410
A036570	엔씨소프트	68,499	11,966
A051900	LG생활건강	67,129	62,940
A032640	LG유플러스	65,492	65,492
A026960	동서	59,564	54,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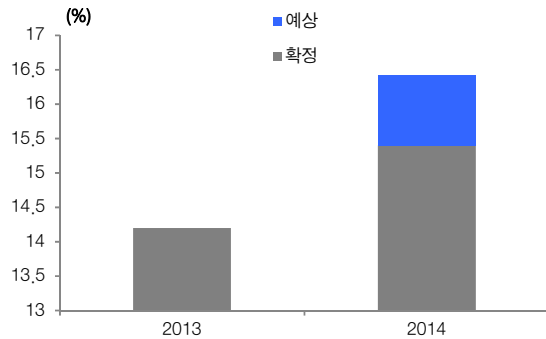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표2〉 2014년 확정 배당금액 증가 상위종목 (단위:백만원)

		2014년 배당	전년대비 증감
A005930	삼성전자	2,999,972.38	843,003.27
A005380	현대차	817,317.00	282,908.00
A000660	SK하이닉스	218,400.54	218,400.54
A034220	LG디스플레이	178,907.85	178,907.85
A032830	삼성생명	340,334.60	177,921.04
A000270	기아차	404,058.00	120,568.34
A000810	삼성화재	198,776.23	78,575.23
A036570	엔씨소프트	68,498.61	56,532.11
A066570	LG전자	72,885.44	36,013.19
A029780	삼성카드	115,400.70	34,620.21
A004020	현대제철	86,908.88	28,969.63
A028150	GS홈쇼핑	48,043.47	26,133.11
A033780	KT&G	428,055.92	25,179.76
A047050	대우인터내셔널	56,938.15	22,775.26
A018260	삼성에스디에스	38,675.09	19,337.55
A122900	아이마켓코리아	17,966.67	8,983.34
A008770	호텔신라	13,810.78	7,870.88
A000060	메리츠화재	39,959.88	7,804.68
A005490	POSCO	639,526.64	6,335.09
A011070	LG이노텍	5,916.13	5,91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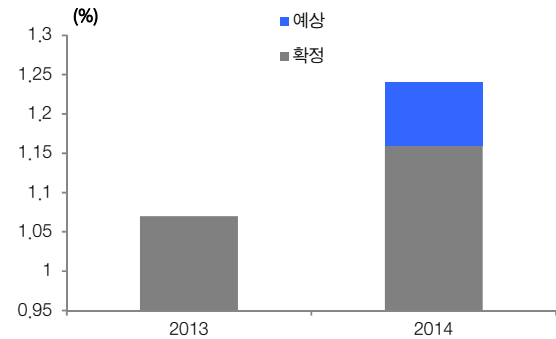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그림1〉 2014년 배당 성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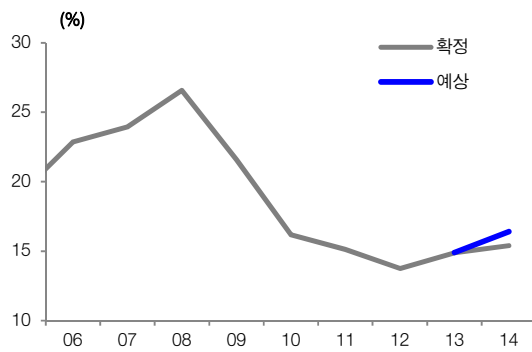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그림2〉 2014년 배당률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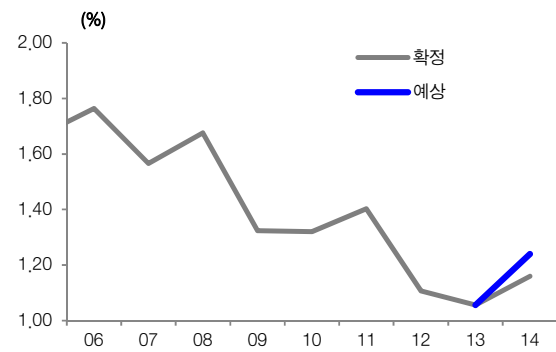
자료: Wisesfn, HMC투자증권

〈그림3〉 배당성향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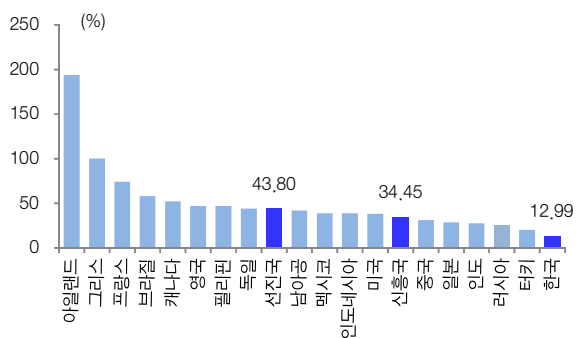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그림4〉배당률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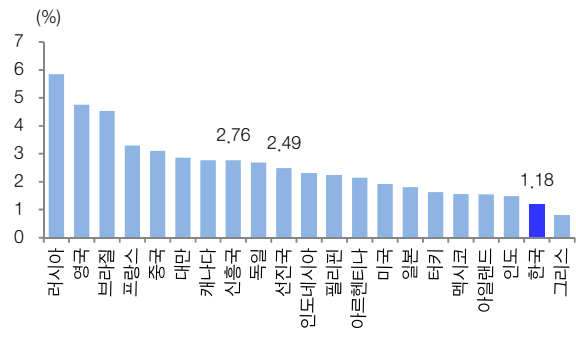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그림5〉 주요국의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6〉 주요국의 배당률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표3〉 2014년 확정 배당률 상위종목

		2013년(%)	2014년(%)
A033780	KT&G	3.939	4.097
A072870	메가스터디	2.528	4.064
A028150	GS홈쇼핑	1.087	3.298
A000060	메리츠화재	2.095	3.029
A003000	부광약품	3.474	2.941
A005490	POSCO	2.224	2.662
A026960	동서	3.250	2.643
A051910	LG화학	1.484	2.455
A029780	삼성카드	1.864	2.253
A005380	현대차	1.026	2.196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표4〉 2014년 확정 배당률 증가 상위종목

		2014년(%)	증감(%P)
A028150	GS홈쇼핑	3.298	2.211
A072870	메가스터디	4.064	1.536
A036570	엔씨소프트	1.716	1.497
A034220	LG디스플레이	1.486	1.486
A005380	현대차	2.196	1.170
A051910	LG화학	2.455	0.971
A000060	메리츠화재	3.029	0.934
A047050	대우인터내셔널	1.590	0.863
A122900	아이마켓코리아	1.760	0.789
A032830	삼성생명	1.461	0.680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표5〉 2014년 예상 배당금액 상위 종목 (단위:백만원)

		2014년	2013년
A055550	신한지주	403,000	370,168
A003600	SK	402,771	102,493
A096770	SK이노베이션	311,313	298,279
A078930	GS	241,400	127,900
A105560	KB금융	232,000	193,176
A030200	KT	208,617	195,112
A012330	현대모비스	191,839	186,349
A010130	고려아연	187,750	88,371
A003550	LG	177,050	175,937
A015760	한국전력	173,173	56,073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표6〉 2014년 예상 배당금액 증가 상위종목 (단위:백만원)

		2014년	증감
A003600	SK	402,771	300,278
A015760	한국전력	173,173	117,100
A078930	GS	241,400	113,500
A010130	고려아연	187,750	99,379
A105560	KB금융	232,000	38,824
A055550	신한지주	403,000	32,832
A000720	현대건설	80,567	24,834
A028050	삼성엔지니어링	22,180	22,180
A006260	LS	54,000	19,291
A001040	CJ	43,700	16,675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표7〉 2014년 예상 배당률 상위종목

		2014년(%)	2013년(%)
A078930	GS	6.50	2.40
A003600	SK	5.25	1.14
A000080	하이트진로	4.46	4.87
A071320	지역난방공사	4.03	3.48
A096770	SK이노베이션	3.96	2.28
A007690	국도화학	3.75	1.80
A072870	메가스터디	3.55	2.53
A001430	세아베스틸	3.20	3.45
A006260	LS	3.09	1.33
A104700	한국철강	3.08	3.66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표8〉 2014년 예상 배당률 증가 상위종목

		2014년(%)	증감(%P)
A003600	SK	5.25	4.10
A078930	GS	6.50	4.09
A007690	국도화학	3.75	1.95
A006260	LS	3.09	1.76
A096770	SK이노베이션	3.96	1.68
A020760	일진디스플레이	2.95	1.67
A028050	삼성엔지니어링	1.46	1.46
A012450	삼성테크윈	2.12	1.20
A117930	한진해운	1.10	1.10
A033240	자화전자	2.62	1.08

자료: Wisefn, HMC투자증권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